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4. 30. / (총 9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당 자	홍 승 령 김 민 주	전 화	044-202-3575 044-202-3576
중대본2본부 운영총괄팀	팀 장 담당 자	홍 종 완 이 훈 구	전 화	044-205-1700 044-205-6156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	팀 장 담당 자	서 일 환 최 진 호	전 화	044-202-3670 044-202-3336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소통팀	팀 장 담당 자	이 경 진 김 문 희	전 화	044-202-2023 044-202-20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및 점검 등 실적, ▲코로나19 관련 인력지원 현황,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안전에 대하여 각 부처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공식 범회를 한달 후인 5월30일로 미뤄주신 것에 대해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일선 방역 현장에서 무자격 체류자나 노숙인 같은 방역 취약계층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였으며,

- 이와 더불어 평소보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연휴 기간동안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및 점검 등 실적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5일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홍보 및 현장점검 실적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그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재난문자 44회, TV 자막방송 3회, SNS 홍보 등을 지속 실시하여,
 -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자제,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시 집에서 휴식, ▲2M 거리두기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홍보해 왔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3,915개 유흥시설, 3,995개 요양시설, 2,118개 PC방 등 총 23,574개소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954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다.
 - 주로 노래방이나 PC방 등에서 관리자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체온계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유흥시설 등에서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이루어졌다.
- 앞으로는 방역수칙을 계속하여 준수하지 않거나, 황금연휴 기간 동안 방역수칙 위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인근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 이와 관련하여 광주에서는 불교계에 사회적 거리 두기 협조를 요청하였고, 전남에서는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PC방과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제주에서는 관광업체와 대중교통 등에 제주형 관광방역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2 코로나19 관련 인력지원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산되면서 지역 사회 감염 대비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군·공공·민간 부분에서 인력을 지원하여 필요한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
- 29일 0시 기준 누계 3,72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이들은 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검체채취, 환자 치료, 자가격리자 상담 등의 의료활동을 수행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데 매진하였다.
 - 특히, 대구와 경북에 파견된 의료인력은 의사 1,197명, 간호인력 1,439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가 386명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2주간의 자기모니터링 기간 부여,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파견 중이나 파견 종료 후에도 의료인력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최우선 입원조치 및 필요 시 타 시도로의 이송이 가능한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 파견 의료인력은 지침에 따라 파견 기간 중 위험수당을 포함한 보상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의료활동으로 인한 자기모니터링 기간에도 기본근무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계속해서 모집하는 한편, 파견된 의료인력의 감염 방지 및 적절한 보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3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선 의료 현장에서 끊임없이 헌신해 오신 의료진의 사기·자부심 진작을 위해 의료진 응원 캠페인 및 온라인 기반 국민참여 릴레이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 ‘덕분에 챌린지’는 개인 인스타그램 등에 국민의 ‘존경’과 의료진의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의 사진이나 영상을 3개의 해시태그(#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와 함께 올리고, 본인에 이어 참여할 3명을 지목하면 된다.

 <p>#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p>	 <p>#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p>
(국민용) ‘존경’ 의미의 수어 동작 활용 상징	(의료진용) ‘자부심’ 의미의 수어 동작 활용 상징

- 4월 29일 12시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에서 6,914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고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기관 및 기관장**, 다수의 유명인사***, 언론 및 방송사, 스포츠계, 예술가, 기업, 종교계 등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내 #덕분에챌린지로 검색된 수집 기준으로, #의료진덕분에 6,386건, #덕분에캠페인 3,855건 등으로도 추가 수집됨

** 대한민국정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해양경찰청, 충청북도, 강원도,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강주시, 나주시, 경산시, 대한간호협회, 서울·경기·경북·충남소방본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보훈요양원, 대구동산병원, 코레일 관광공사, KB금융그룹, 현대모터그룹, 롯데멤버스, 제주항공 등




*** 피겨선수 김연아, 배구선수 김연경, 배우 최민식·김수미·정보석·배종옥·조인성, 가수 보아·송가인·인순이·유노윤호·에이핑크·모모랜드, 개그우먼 박나래·김지민, 골프선수 임성재, 야구선수 김창평, 크켈레톤선수 윤성빈,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기상어·뽀로로 등

○ 아울러, 지난 4월 22일부터는 존경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수어를 배지로 제작하고, 국민 참여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사 영상도 제작하고 있다.

- 중대본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4월23일 대구 동산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덕분에 배지를 달아 드렸고,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차관)도 간호협회(4월16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4월22일), 국군의무학교(4월27일)를 방문하여 배지를 전달하였다.

○ 또한, 오늘부터는 덕분에 캠페인 상징 디자인 사용규정(가이드라인)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덕분에 캠페인에 보다 쉽고 자유롭게 참여하되 통합되고 일관된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디자인 사용 규정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http://ncov.mohw.go.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홍보자료 코너 혹은 파스아리블로그(blog.naver.com/mohw20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p>#덕분에 캠페인 상징 이미지 의미 및 메시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의료진에 대한 존경 “공경”을 의미하는 수어 동작</p> <p><small>원손바닥 위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워서 올린 모양은 수어로 존경을 뜻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small></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의료진의 화답 “자부심”을 의미하는 수어 동작</p> <p><small>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가슴 중앙에 대고 가슴을 펼친 모양은 수어로 자부심을 뜻합니다. 코로나19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과 모습입니다.</small></p> </div> </div>	<p>#덕분에 캠페인 상징 (모양)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세요!</p> <p>덕분에 상징 디자인 원본 & 사용 가이드 배포 * 첨부해드린 “디자인 사용 규정”에 맞게 사용 부탁드립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 ncov.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p> <p style="text-align: right;">보건복지부</p>
<p>덕분에 캠페인 배지 및 심볼 디자인 사용 규정</p>	

- 박능후 1차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국민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캠페인에 동참하여 의료진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붙임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